

해 외 출 장 보 고

- 출 장 복 명 서 -

- 출 장 자 : 김동주 부 원 장
윤하중 연구위원
배유진 연 구 원
- 출장일시 : 2014년 11월 12일 ~ 11월 14일(2박 3일)
- 출장국가 : 홍콩

- 1 -

1. 출장 개요

□ 출장 목적 :

- 20th Asia Construct Conference¹⁾ 참석 및 주제발표
- 아시아 국가의 건설산업 동향 파악, 정책 교류 및 협력 증진

□ 출장 개요

- 일시 : 2014년 11월 12일(수) ~ 11월 14일(금)
- 장소 : 홍콩 ICON Hotel
- 참여국가 : 한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인도, 호주, 말레이시아, 스리랑카, 베트남, 홍콩 등 9개 국가
- 한국 참석 인원 : 총 5명
- 국토연구원(3명) : 김동주 부원장, 윤하중 연구위원, 배유진 연구원
- 한국건설산업연구원(1명) : 빈재익 연구위원
- 대한건설협회(1명) : 안광섭 회원본부장

□ 출장 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11.11(수)	인천공항 (13:45)	홍콩 (16:50)	-	- 인천국제공항 출발 - 홍콩 도착	
11.12(목)	-	-	ICON Hotel	- 개회식 - 국가별 발표 및 토론 - 대표자 회의	아시아 9개국 참가자
11.13(금)	-	-	공사현장	- West Kowloon terminal station 및 Western Cultural District 공사현장	아시아 9개국 참가자
	홍콩 (18:00)	인천공항 (22:30)	-	- 홍콩 출발	

1) 아시아 국가간 건설 관련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국가간 건설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설립(한국은 '97년 제2회, '07년 제13회 2회 개최)

2. 주요 수행사항

□ 국가별 발표



- “Construction Economics”, “Material for Construction” 이라는 두개 주제를 가지고 국가별 발표
- “Country Report : Economy and Construction in Korea” (별첨)
발표 : 배유진 연구원
- 아시아 각국에서 건설자재 문제는 상이하게 발생
 - 일본의 경우 신규인력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고 인력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함
 - 홍콩의 경우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력뿐만 아니라 건설자재가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최근 원자재 값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함
 -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설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- 3 -

□ 대표자 회의 참석



- 차기 Asia Construct 개최 장소 결정
 - 21회 개최지(2015년) : 한국, 서울
 - 22회 개최지(2016년) : 일본, 23회 개최지(2017년) : 호주 예정
 -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연구원 예산이 확정되는 연말 이후 2015년 3월 까지 각 회원국에 통보
- 차기 Asia Construct Conference 주제 논의
 - Manpower Shortage, In-house Training(First Hire then Train), Supply from Overseas, Enhancing the productivity, Financial Incentive 등을 제안
 - 이를 종합하여 개최국에서 내년 3월까지 확정된 주제를 제시
- 기타 논의 내용
 - Collaborative Efforts를 강조 : 이슈에 따라 국가별 공동 참여를 독려했으며, 특히 금년도에 참여한 핵심 6개 국의 공조를 강조함

- 4 -

□ West Kowloon Terminal Station South 공사현장 방문



- 중국 광저우 - 선전 -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역사건설 사업임
 - 사업기간은 2011.5.17.~2015.5.10.이고 총 624억 홍콩달러(8.9조원)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
 - 몇 개의 회사(건설회사 포함)가 Ching Chong이라는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건설하며, 건설후에 운영은 철도공사가 담당함
 - 총 철도노선 중 홍콩이 건설하는 구간은 약 26km이며, 시속 200km 고속철도 완공시 광저우까지 48분 만에 도착
- 열차가 운행되는 지하 4층까지 터미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많은 자재와 인력이 투입됨
 - 출구는 15개이며, 1,900,000㎡의 땅파기(excavation) 작업으로 수행됨
 - 80,000 ton의 철강, 350,000 ton의 콘크리트가 사용됨
 - station box를 이용해 현재 지하 2층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음
 - 해당 부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624억 홍콩달러는 부지매입비가 아닌 공사비용이며, 비용중 약 60%가 인건비임
- 각 분야별 사업관리를 통해 On time Within Budget을 추구하고 있음
 - 안전, 자재, 재원조달 등 각 분야별로 관리팀을 두어 운영함
 - 특히,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황판에 사전에 공지하고 위험도에 따라 복장을 차별화하고 있음
 - 해당 공사현장을 지나는 임시 도로를 함께 건설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함

- 5 -

□ Western Cultural District 현장방문



- 서부지역에 간척을 통해 조성한 지구를 문화특구로 개발하는 사업임
 - 사업면적은 약 40 hectare이며 주요시설로는 중국 경극 등을 공연하는 xiqu 센터(2013.9~2017)와 복합 전시시설인 M*(2014.4~2018)가 있음
 - 해당 지역의 지하에는 앞에서 말한 고속철도 역사와 기존 지하철 노선 등이 지나가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
 - xiqu 센터와 M*시설은 사업지구의 양 끝에 배치함으로써 중간지역에 입지한 시설들의 가치를 극대화함
- 주 용도는 예술 및 문화시설인데 주거, 상업, 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컨셉임
 - 토지이용을 보면 Core arts & cultural Facilities 시설이 34%로 가장 높음
 - 수익은 상업시설(16%), 주거시설(20%), 오피스(16%), 호텔(8%)에서 발생하여 운영이 가능함
 - 부족한 운영비는 국가에서 보조가 필요할 것을 보임
 - 예술인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시설(사회주택)이 부족함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
- 설계단계부터 주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있음
 - 공간배치 단계부터 주민들과 실제 입주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음

- 6 -